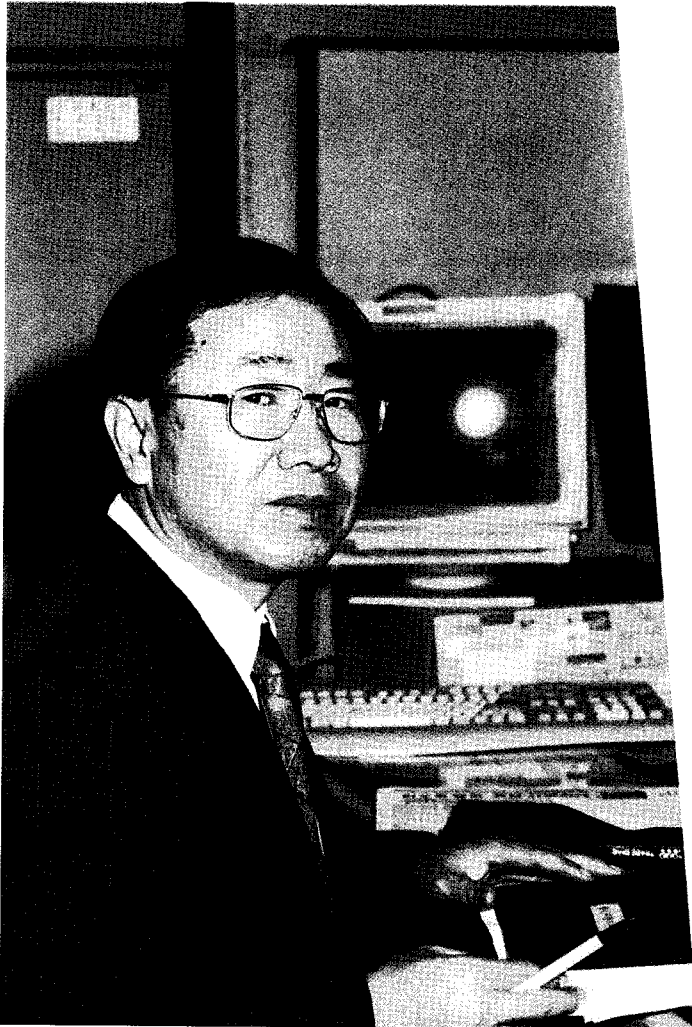


## 산자부 이강후 에너지관리 과장

# 내년 초 · 중학교 ESCO사업 적극추진 매년 1천억이상 시장 창출된다.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고유가 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제 중 주요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 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저렴한 에너지가격유지 등 안정적 공급중심 정책에서 점진적인 가격현실화 및 시장기능 확보 등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책?

국제유가가 금년초에는 배럴당 10불대이었으나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 25불대를 상회하였습니다.

원유가가 상승한 이유로서는 OPEC 회원국의 적자보존을 위한 감산합의가 예상외로 잘 지켜지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경기회복과 미국의 석유재고 감소, 월동기의 도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대책으로는 유가가 상승하면 자연적으로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감 방안을 강구하므로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없으나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책을 심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저유가시대에도 에너지절약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2. 올 한해 추진된 에너지절약정책과 향후방향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고유가 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제 중 주요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 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저렴한 에너지가격유지 등 안정적 공급중심 정책에서 점진적인 가격현실화 및 시장기능 확보 등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VA) 확대, 건물부문 및 공공부문의 ESCO사업 활성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용자지원 확대, 고효율기기 제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추진, 에너지 효율관리 제도의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3. 그동안의 ESCO사업 성과와 앞으로 전망은?

국내에 ESCO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2년도입니다. ESCO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시행 효과가 만족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SCO의 활동은 '97년까지는 등록업체수도 적었고 사업실적도 연 50억~70억원으로 미흡하였으나 98년 한해에만 ESCO가 12업체나 증가하여 28개업체가 되었고 사업실적도 29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되어 11월 현재 ESCO 등록업체는 54개업체로서 562억원의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한 동안 계속되리라 전망됩니다.

#### 4. ESCO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ESCO사업의 확대를 위하여는 정부의 자금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ESCO사업 대상을 공공기관과 아파트,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사업내용도 단순 조명시설 위주에서 공정개선, 폐열회수, 냉난방시스템 등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 동기가 낮은 초·중등학교 시설에 대한 ESCO사업 추진방안을 강구,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매년 1,000억원이상의 새로운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5. 등록후 사업중지 ESCO에 대한 대책은?

등록후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ESCO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사업활성화 초기단계로서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향후 문제점 발생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6. 공단 ESCO지회사 설립 방안은?

1998년부터 ESCO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자회사로 ESCO회사를 설립하여 ESCO제도를 조기에 활성화시키자고 마련된 방안입니다.



아울러,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참여가 기존 ESCO업체의 전문화에도 기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반 문제점도 있으므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7. 2002년까지 7,50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배경과 조달방법은?

자금지원재원은 기존 에특회계 예산이 외에 에너지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인상분 등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대폭적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로 에너지가격 현실화에 따른 수요자의 연료비 부담 상승 충격과 에너지원간 가격구조의 왜곡현상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8. 고효율기자재 품목확대 등 제도의 취지와 운영계획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은 조명등 및 전동기 등 에너지사용이 많은 기기들을 조기에 고효율화하도록 유도하고 생산과 보급을 촉진하여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제도로서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와 일정수준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하여주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가 있으며 향후 대기기자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9. ESCO지 창간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CO제도가 시행된지도 벌써 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계의 많은 노력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업계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ESCO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ESCO가 시장접근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었으며 반대로 ESCO를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수요자들은 정보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던 터에 ESCO협회에서의 전문지 창간소식은 오랜 가뭄속의 감우와 같이 반가웠고 기대 또한 큼니다. 아울러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간되는 ESCO협회는 국내 유일의 ESCO전문지로 ESCO업체의 애로를 타개하고 새로운 시장과 수요자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ESCO업체의 전문화에도 기여하여 주시어 국가에너지절약에 큰 힘이되는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